

光州日報와 함께
행복한 주말을

Weather

광주·전남 휴일 날씨

29(土)	30(日)
구름많고 소나기 24 / 30℃	구름많음 24 / 32℃

News

- 전남기업 환율 무방비 ②
- 교육위원 후보 손살포 ③
- LPGA 위성미 2R 1위 ⑧



Jeollado

- 풍수-서해안寶庫, 신안 ⑦

Entertainment

- 주말극 '발칙한 여자들' ⑧
- 시트콤 영화화 '올미다' ⑨

Wellbeing

- 식품 집중 탐구-연 ⑬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웃음 만한 보약 있나요”

18인의 웃음전도사 '광주웃음클럽'
웃다보면 활기 넘치고 일도 잘돼요
회원 모두 1, 2급 웃음치료 전문가

“하나 둘 시작!” “으하하하, 아하하하하, 으라차차 하하, 히히~” 한 사람이 선창하자 너나 할 것 없이 일제히 폭발한다. 힘겨운 하루 하루를 살면서 언제부터인가 우리 기억 속에서 잊혀져 버린 박장대소 그것이다. 몇 분간의 끊임없는 웃음소리에 보는 사람들도 절로 웃음을 띄게 된다. 이 웃음 소리의 주인공은 ‘으하하하 광주웃음클럽’의 회원들. 목사와 레크리에이션 강사, 간호사 등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는 이들은 모두 한국웃음연구소에서 1, 2급 웃음치료 전문가 과정을 수료했다. 작년 9월부터 시작된 이 모임은 순수한 친목모임으로 시작했다. ‘우리 지역에 웃음을 전파해 보자’는 목표로 최초 4명에서 시작된 모임이 점차 늘어나 지금은 18명으로 늘어났다. 모임 장소는 일정치 않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면 장소 불문하고 달려가기 때문이다. 하지만 좀더 효율적인 웃음 바이러스 전파에 힘쓰기

위해 내달부터는 매월 1일 첨단지구 호수 공원에서 웃음 강연 등을 열 생각이다. 얼굴 가득 웃음기가 묻어있는 정병탁(58) 회장은 “원래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이었다”며 “웃음을 지으며 성격을 리모델링 하니 지금은 정말 행복하다”고 말했다. 이들이 웃음치료 전문과정을 수료한 계기는 다양하다. 정종순(여·58) 광주YMCA 신협 전무는 “뇌경색으로 4년을 앓은 적이 있었는데 웃음으로써 병을 다 치유했다”며 “만병통치약인 웃음을 전파하고 싶어서 활동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회사원 이선행(43)씨는 “조직에 활력을 넣기 위해 시간을 내 웃음 자격증을 땀다”며 “사원들이 웃음을 생활화 하다보니 업무 능력도 훨씬 향상됐다”고 말했다. 이들에게 웃음의 의미는 무엇일까. 레크리에이션 강사인 최춘식(42)씨는 “웃음은 나를 찾는 도구입니다. 웃음을 잃었다는 것은 근본적인 행복을 잃어버린 것이기에 나를 찾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웃음입니다”라며 사람 좋은 웃음을 지어보인다. 박형대(52) 목사는 “박장대소하는 우리들을 보고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상하게 여기지만 그 순간부터 자신들도 모르게 얼굴은 미소를 띄고 있다”며 “웃음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있다는 점이 바로 웃음의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2면으로 계속) /최진만기자 man21@kwangju.co.kr



‘파안대소’

‘웃음 바이러스’ 전파에 나선 광주웃음클럽 회원들이 28일 한국웃음연구소 광주·전남지부 사무실에 모여 일제히 함박웃음을 터뜨리고 있다. 이들은 모두 웃음치료 전문가 과정을 이수한 웃음 전도사들이다. /위적량기자 jrwi@kwangju.co.kr

경기 선행지수 5개월째 하락 통계청, 6월 산업동향

경기 선행지수가 5개월 연속 하락한 데다 동행지수까지 3개월째 내림세를 계속해 이미 경기가 하강 국면으로 들어선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6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향후 경기동향을 예고하는 지표인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는 4.9%로 전월보다 0.4%포인트 떨어졌다. 이로써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는 5개월째 하락, 향후 경기가 하강할 것이라는 진단에 설득력을 높여주고 있다. 또 현재의 경기도 상승 모멘텀이 둔화되고 있는 조짐을 보여 이미 경기 정점을 지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9번째 위성 ‘아리랑 2호’ 발사 성공

어제 러 플레세츠크 기지

우리나라 9번째 인공위성인 다목적실용위성 2호(아리랑 2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사진) 아리랑 2호는 28일 오후 4시5분(한국시각)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북동쪽으로 800km 떨어진 플레세츠크 기지에서 러시아 후르니초프사의 발사체 ‘로켓(ROCKOT)’에 실려 지구상공 685km의 태양동기궤도를 향해 쏘아 올려졌다. 이번 발사 성공으로 우리 나라는 세계에서 7번째로 1m급 해상도의 다중대역카메라(MSC)를 보유하게 됐다. /러시아 플레세츠크=공동취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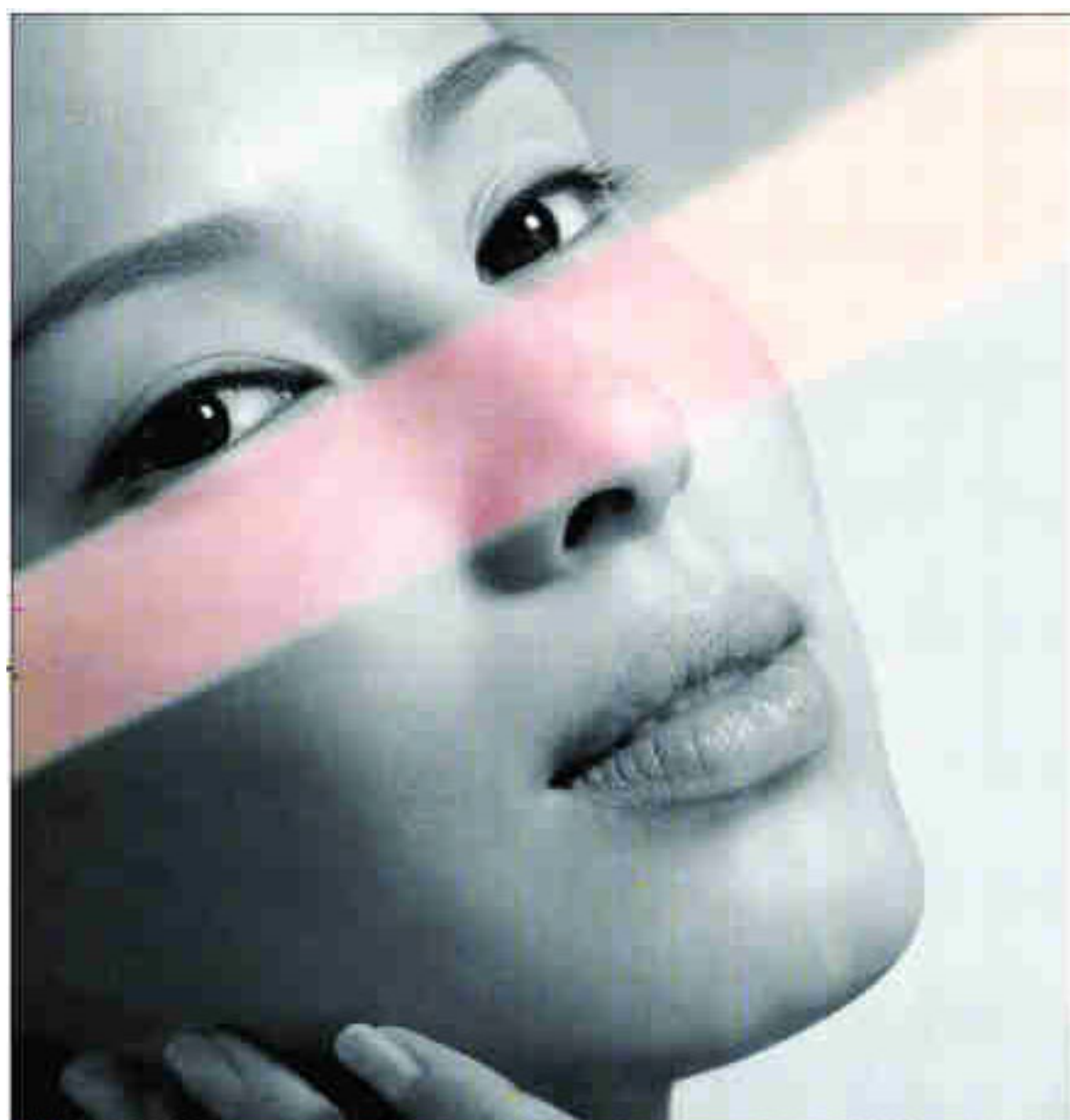


北 뺨 ‘10자회담’... 대북 압박

ARF “北 미사일 사태 우려” 공동성명

북한이 끝내 ‘6자회담 거부’ 입장을 재확인함에 따라 북한을 제외한 ‘장관급 10자회담’이 28일 오후 3시10분께(현지시각)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렸다. 10자(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국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주최국인 말레이시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회동 의장적인 미국의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미국은 언제나 6자회담에 나갈 수 있다”면서 “북한이 복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리자오싱 외교부장은 북한의 백남순 외무상과 마지막 실무회담을 벌이느라 30여분 가량 늦게 회의장에 합류했다. 그러나 이른바 혈맹관계였던 중국의 마지막 제안마저 북한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북중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쿠알라룸푸르=연합뉴스

지난 5일 미사일 발사와 유엔 안보리 결의 채택 이후 공개된 다자 외교무대에서 북한이 다시 한번 ‘금융제재 해제’를 대화 재개의 조건으로 제시하며 ‘벼랑끝 전술’을 지속했고 이에 대해 미국이 추가적인 대북 제재를 가속화하겠다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미사일 사태는 10자회담을 계기로 종대고비를 맞게됐다. 북한 백 외무상은 앞서 이날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KLCC)에서 열린 ARF 리트리트(편하게 토론하는 회의)와 전체회의에서 “제재 모자를 쓰고는 6자회담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했다. 백 외무상은 또 “ARF가 부당한 성명을 강압적으로 통과하려 할 경우 이를 전면 배격하며 (ARF에) 계속 남아있을 지,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ARF는 전체회의를 통해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할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쿠알라룸푸르=연합뉴스



기미, 검은반점치료에

도미나크림은 치료를 위한 의약품입니다. 도미나 크림은 기미, 주근깨, 노인성 검은반점등, 피부에 과도하게 침착된 멜라닌색소를 효과적으로 억제, 개선시켜 주는 치료를 위한 의약품입니다.

도미나크림은 호르몬에 의해 피부에 침착된 멜라닌색소를 억제하여 기미, 주근깨, 노인성 검은반점의 원인인 색소침착 현상을 정확하게 개선, 치료하여 줍니다.



탈모증 치료제 모바린

일반 의약품으로 약국에서 직접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